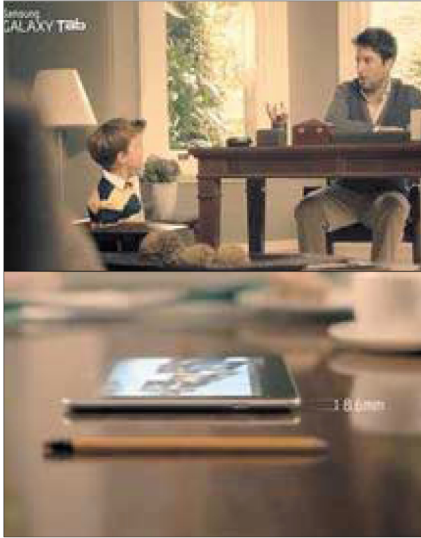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두 번째 광고



삼성전자가 신형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두 번째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에서는 '갤럭시탭 10.1'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쟁탈전을 표현, 갤럭시탭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던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아들이 갤럭시탭을 찾자 당황하다 황급히 책상 위에 있던 연필로 탭의 옆면을 가린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연필에 의해 탭이 가려지게 되고 아들은 갤럭시탭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필보다 얇은 '갤럭시탭 10.1'의 두께를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시장에 '갤럭시탭 10.1'을 내놓은 상태이고, 국내에서는 7월 17일부터 '갤럭시탭 10.1' 와이파이 모델의 예약판매를 시작하였다.

[LG유플러스] U+AD 태블릿PC 광고플랫폼 2011' 개최



LG유플러스가 7월 1일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호텔에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태블릿PC용 광고 플랫폼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U+AD 태블릿PC 광고플랫폼 2011'을 개최하였다.

태블릿PC는 스마트폰보다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에서 구현하지 못한 인터랙티브 광고가 가능하여 기존의 배너광고에서 벗어나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거나 이미지 음악 등을 이용하여 게임 형태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코스모폴리탄, 아레나, 나일론, 세네21, 에센, 월간산,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 광고주가 선호하는 태블릿PC 유력 매체를 다수 확보했다"고 전하며 "광고주는 태

블릿PC 광고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고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 새 광고캠페인 '버스콘서트'



현대차그룹이 7월부터 10월까지 가수 5명이 버스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여는 '버스콘서트' 캠페인을 한다.

다. 작년의 '기프트카' 캠페인에 이은 새로운 캠페인으로 현재 이를 알리기 위한 광고가 전파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광고는 총 3편으로 제작되었으며 국민들이 버스를 타며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광고를 제작한 이노션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광고는 '버스콘서트' 캠페인의 예고편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캠페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전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에 '기프트카' 캠페인이 차를 선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 캠페인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국민들을 직접 응원하자는 목적으로 국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버스를 다루게 되었다고 한다. 버스콘서트에 참여할 5명의 가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버스에 깜짝 등장하여 시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아자동차] 모닝 가솔린 모델, 에너지위너상 수상



기아자동차는 7월 21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제15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모닝 가솔린 모델'이

고효율 자동차 부문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제품의 생산 및 소비 확산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술이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을 한 모닝은 기아차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신형 카파 1.0 MPI엔진을 국내 최초 적용한 차로 우수한 연비와 성능, 친환경 기술을 인정받은 것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술 및 제품 등에 수여하는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모닝이